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진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구례군, 인구 5년 연속 증가세 유지

구례군 인구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구례군이 밝힌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인구가 27,525명으로 지난해 대비 113명이 늘어났다.

지난 2012년 27,077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전남에서 유일한 기록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도정 슬로건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전남도가 발표한 전라남도 내 시·군 장래인구 추계에 구례군이 전남에서 2번째인 13.8%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도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결과다.

사실 구례군은 인구 문제를 거론할 때면 항상 먼저 거론되는 전남에서 가장 작은 지역이었다. 가장 작기 때문에 쉽게 소멸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민선 4기부터 6기까지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기동 군수 역

2012년 최저치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

자연드림파크 유치·정주환경 개선 등 주요

시 이 문제를 가장 큰 지역 현안으로 삼았다.

일단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구례군은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관광 1번지로 꼽히지만 실상 제조업 등 2차 경제산업 기반이 전혀 없어 인구 증가 기반이 매우 취약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례군과 구례군의회가 협력하여 기업유치에 올인하였으며, 그 결과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 단지인 구례자연드림파크를 유치하게 되었다. 2012년 라면 공장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현재 24개 기업 17개 공방(공장이) 운영 중이며, 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또 올해부터 2단계에 6개 기업이 신

규 입주하여 250여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구례군 인구에 비교하면 무척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셈인데, 최근에는 일자리가 있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또한 군은 귀농·귀촌 인구 유치를 위해서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를 신축해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전원마을도 대폭 확충하고 있다. 또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구례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012년 297명이던 귀농·귀촌인구는 2017년 1,713명으로 많이 늘어났다.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계속했다. 농촌 지역의 부족한 소독원을 개발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해마다 확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짧은 층의 선호에 맞춰 6개 단지 450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등 인구 성장 기반을 만들고 있다. 이밖에도 교육환경 개선과 출산 장려 시책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해 12월 인구 3만 명 회복을 목표로 하는 '구례 2030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인구·일자리·청년·출산 등 4개 분야 34개 사업에 4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산업 기반 확충으로 인구 3만 자족도시 구례 실현에 초석을 다지겠다"며, "자신이 사는 도시를 사랑하는 게 행복의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지역 발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호 전남도부처재본부장



보성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오는 9일부터 농업인 1,500여 명 대상 15회 진행

보성군은 영농기술 실전을 위한 '2018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오는 9일 보성읍을 시작으로 2월 9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 북지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 북지화관 등에서 농업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실용교육은 전년도 영농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 보급, 달라지는 농정 시책홍보 등 새해 영농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 생명농업과 고품질 다수확 실현을 위한 벼농사, 고추재배기 술 등 '영농종합반 교육' 12회, 4차 산업 혁명과 농업변화, 농업유용 미생물활용 농촌 여성을 위한 '소규모 창업 교육' 3회 등 총 15회가 진행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영농기술 뿐 아니라 농정방향 농작업 안전교육, 잔류농약관리제도(PLS) 및 AI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된다.

교육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860-5712) 또는 각 읍면 상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변화하는 농정시책에 대응하고 새로운 영농기술 습득과 현장에 기술 해결 등 영농실계를 위한 좋은 기회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기술, 품목별 상설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연중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광군, 전남 도내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 1위 차지

음식점 창업 등 6개 분야 전국 1위

영광군은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7 전국기업환경지도 평가 '경제활동 진화성' 부분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인 S등급을 받으며 도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국기업환경지도 경제활동진화성 평가는 전국 228개 광역 및 기

초지단체를 대상으로 공장설립 및 다가구주택 인·허가 조례, 창업지원, 기업용차 및 보조금 등 16개 분야 102개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 결과 영광군은 16개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S등급을 받았으며 음식점창업, 기업유치 지원, 산업단지, 환경, 공공계약, 지방세정 등 6개 분야에서는 전국 1

위를 선점하는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군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사1담당제 운영 및 기업인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해결방안 모색 등 기업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인허가 행태 개선 및 현장·소통 중심의 파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영광군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흡한 부분을 더욱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와 기업애로 사항 등을 작기에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평가에서도 전국 개선도 1위를 차지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최자치로 입증된 바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성 황룡강노란꽃잔치' 전남도 대표 축제 선정



개최 3년만에 우수축제 선정

지난해 백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다녀간 '장성황룡강 노란꽃잔치'가 2018년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선정됐다.

장성군은 지난 28일 전남도로부터 '장성황룡강 노란꽃잔치' (이하 '노란꽃잔치')가 2018년 도 대표 우수축제로 최종 선정돼 대비 1천5백 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라남도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전라남도는 지역 축제 육성을 위해 매년 6~7개의 대표 축제로

뽑아 지원하고 있다.

'노란꽃잔치'는 장성 황룡강에서 가을꽃을 테마로 개최하는 축제로 2~3년전부터 열린 신생 축제지만 지난해 백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장성의 대표축제로 단숨에 성장했다.

특히 10여종의 가을 꽃들이 드넓은 황룡강을 따라 가득 펼쳐진 정원들이 축제의 백미로 꼽히며 황룡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꽃강(Flower River)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제 막 시작한 신생 축제임에도 황룡강과 꽃이라는 자연친화적 아이덴티티와 참신한 즐길

거리, 볼거리를 만들어 낸 점, 무엇보다 축제 준비부터 운영까지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 거버넌스형 축제로 운영한 것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장성군은 현재 흥길동축제, 노란꽃잔치, 백양단풍축제를 군에서 주관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2016년에 흥길동축제가 도 대표 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황룡강은 열로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장성의 미래와 비전, 희망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원이자"며 "2018년 노란꽃잔치도 주민들과 함께 더욱 알차게 준비해 장성의 색깔을 보여주는 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변정모 기자

함평군, 남도노동요 전수교실 개강

오전박주권역센터서 100여 명 참석...매주 화요일 운영



함평군 읍대면은 지난 2일 오전 박주권역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남도노동요 전수교실'을 개강했다.

개강식엔 '남도노동요' 전수자 천병래 씨를 비롯해 정우관 전수회장, 불암마을 주민 읍대면 농약단원, 주민자치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강식은 정우관 전수회장의 인사말, 운영계획 설명, 기관사회단체장 덕담, 남도노동요 시연 순

으로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연중 매주 화요일 운영되며 수강료는 무료다.

남도노동요는 지난 1977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제 제5호로 지정되었으며, 기능보유자 故 천학실 씨

주도 하에 후계자를 양성해 왔다. 현재 읍대면 불암마을 회원 20여 명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나 고령화, 재정적 부담으로 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인영 읍대면장은 "이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잊혀져가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계승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부·자문위원회)
 - 유관기관 연계로 통한 상담 무수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열악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지원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